

마이크 펜스 美 부통령 한·미 FTA 개정 가능성 열어

1. 개요

- 마이크 펜스 美 부통령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(AMCHAM)에서 韓美 FTA 개정을 시사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력이 현실화될 우려 증가
 - 펜스 부통령은 韓美 교역의 불균형을 주장하며 韓美 FTA의 검토(review)와 개정(reform)을 추진하겠다고 밝힘
 - － ‘12년 韓美 FTA 발효 후 양국의 교역량과 직접투자 규모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나,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두 배로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산업이 진출하기에 많은 장벽이 있다고 덧붙임
 - 펜스 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韓美 FTA 개정 요구가 본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 경우 우리 수출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
 - － 미국 무역대표부(USTR)는 지난 달 공개한 무역정책 보고서를 통해 韓美 FTA로 미국의 무역적자폭이 증가했다고 보고한 가운데, 트럼프 행정부는 ‘미국 우선주의’ 원칙에 따라 주요 교역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됨

2. 시사점

- ‘미국 우선주의’ 원칙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재검토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대비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

- 펜스 부통령은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며 재협상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韓美 FTA 개정(reform)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
 - － 미국은 對美 수출이 급증한 품목에 관세를 높이고 법률, 의료 등 서비스 시장 개방과 농축산물 관련 세율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
- 韓美 FTA의 체결로 미국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
 - 韓美 FTA 발효 후 세계 교역 부진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양국 교역은 증가세를 기록
 - － ‘16년 6월 29일 美國제무역위원회(USITC)가 발표한 FTA 관련 보고서는 韓美 FTA로 인해 양국 모두가 이익을 보고 있다고 평가
 - 韓美 FTA 발효 이후 5년간 세계 교역은 연평균 2.0% 감소, 한국의 對세계 교역은 3.5% 감소한 반면 韓美 교역은 연평균 1.7% 증가
 - － 對美 수출은 5년간 연평균 3.4% 증가하며 對주요국 수출에 비해 양호한 성과를 나타냄
 - － 對美 수입은 연평균 0.6% 소폭 감소하여 한국의 對세계 수입이 연평균 5% 감소한데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율을 기록
 - － 발효 이후 5년간 무역수지 흑자는 총 116.1억 달러 증가하였으나 발효 3년차를 기점으로 증가폭이 줄면서 ‘16년에는 232.5억 달러를 기록

〈韓美 교역 동향〉

(단위: 억 달러, 전년대비%)

연도	2011년 (발효 전)	2012년 (1년차)	2013년 (2년차)	2014년 (3년차)	2015년 (4년차)	2016년 (5년차)	5년간 연평균
수출	562.1 (12.8)	585.2 (4.1)	620.5 (6.0)	702.8 (13.3)	698.3 (-0.6)	664.6 (-4.8)	3.4
수입	445.7 (10.3)	433.4 (-2.8)	415.1 (-4.2)	452.8 (9.1)	440.2 (-2.8)	432.2 (-1.8)	-0.6
교역	1,007.8 (11.7)	1,018.7 (1.1)	1,035.6 (1.7)	1,155.7 (11.6)	1,138.6 (-1.5)	1,096.8 (-3.7)	1.7
한국의 對세계 교역	1,0796.3 (21.1)	1,0674.5 (-1.1)	1,0752.2 (0.7)	1,0981.8 (2.1)	9,632.6 (-12.3)	9,016.2 (-6.4)	-3.5
세계 교역(수출)*	164,100 (18.4)	164,430 (0.2)	169,220 (2.9)	170,850 (1.0)	152,010 (-11.0)	148,050 (-2.6)	-2.0

주1: 세계 교역은 주요국 71개국의 대세계 수출을 기준으로 작성(2015년 기준 세계 수출의 약 90% 차지)

주2: ()은 전년대비 증감률

자료: 한국무역협회(K-stat), WTO